

참교육이 만드는 좋은 책

김현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불어학

우리나라는 교육열기로 늘 뜨겁다. 그러나 이 교육열기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 축적, 전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교육열기가 입시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민한 감수성과 풍부한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시절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교과서와 입시문제집만을 늘상 대하고, 여가시간들은 과외교습이나 각종 영상물에 빼앗긴다. 따라서 독서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를 말과 글로 표현하는 습관이란 좀처럼 기대하기가 힘들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교육방식 역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로나 글로 표현하여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일방적인 강의만이 있으므로 표현의 문화가 없다. 토론과 대화의 중요성은 내용의 타당성과 깊이를 더하고, 표현의 다양성과 논리를 개발함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출판의 견지에서 본다면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는 학습을 제외한 다면 광범위한 독서시장의 형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형 출판사는 주로 중고등학생의 참고교재를 제작하고, 작은 서점의 서가에는 울긋불긋한 학습용 교재들이 주로 유통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읽게 할 적합한 책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또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즐겁게 독서하고 얘기하고 발표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독서습관과 지식에 대한 애정과 열망은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들을 독서에 몰들게 한다면 더없이 좋은 시장이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좋은 작가와 훌륭한 지식인을 생산해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뛰어난 작가와 박학다식한 지식인은 상품을 제조하듯이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교육제도는 아직도 여기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자기 말과 글로 된 문화유산의 중요한 토양 속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각자가 지닌 창조적 잠재적 재능이 활짝 꽃피어날 때야말로 우리는 좋은 작품을 거두게 된다.

흔히 우리나라에는 작가들과 저자들이 한정되어 있다고들 말한다. 적어도 필자가 관찰한 바로는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지적한 비정상적 교육제도 운영과 참교육에 대한 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정보통신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전달을 하고, 이러한 방면으로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다. 그 결과 종래의 인쇄매체는 다른 영상매체에 비해 흥미와 신선함에서 매우 떨어지고, 직접적인 호소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보급으로 전통적인 출판개념 자체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 문자기호에서 탈피하여 영상기호와 음성기호가 복합된 매체가 정보전달과 정보창조의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구텐베르크 이래 제2의 지식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한 기호체계는 방법적인 형식의 문제이지 내용과 본질은 아니다. 우리가 진정 잘 설계된 자랑할 만한 교육체계를 지니고, 이를 통해서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이들을 꾸준히 길러내는 한편 교양있는 대중들을 양산(量産)해낼 수만 있다면 출판세계의 앞날은 더욱 희망차다고 하겠다.

특별 좌담	2	“변화하는 시대, 편집자도 달라져야 한다” 기획에서 마케팅까지 입체적 시각 갖춰야 (김학원/유영일/최봉수/형난옥)
초점	8	세계인의 책잔치, '95 서울국제도서전 20개국서 30만권 출품... 명실상부한 국제전 면모 과시
저작권 상담	10	저작권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소급보호기간, 배타적 허락 불인정, 유예기간 등
출판계 소식	11	출협 제정 두 도서상 시상식 개최·외
특집/하이테크	12	하이테크시대 출판의 미래—이중환 시대의 출판 고전적 출판 기능 확보, 뉴미디어 적극참여 등 대안
	13	책없는 '꿈의 도서관'이 다가온다—박태건 21세기 정보초고속도로 건설로 전자도서관 구축
	14	'정보의 바다'로 이끄는 인터넷 입문서 활기
	15	인터넷으로 저술·강의하는 황승연 교수
	16	"정보는 미래사회를 어떻게 재편하는가"
얼굴	17	《소설 택리지》 펴낸 최범서씨
출판 화제	18	19세기 고전소설들이 잘 팔린다 《일곱박공의 집》 비롯, 디킨즈·기싱 등의 작가도 반항 커
	19	책으로 경험하는 이색직업의 세계 백신 프로그래머 등 진솔한 체험 담아
이 책을 말한다	20	현실에서 출발해 현실을 꿰뚫은 통찰—윤구병 박흥규 전집과 추모논문집을 보며
신간 읽기	21	말들이 꿈꾸는 풍경화—박형준 이어령의 《말 속의 말》을 읽고
서평	22	권택영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이론》—박찬부 예코 《언어와 여행하는 방법》—서동진
	23	한창완 《한국만화산업연구》—손상익
	24	오이어 《현대의 과학철학 입문》—최종덕 이필렬 외 《교양환경론》—김형철
	25	체이킨 《배우의 현존》—안치운
에세이	26	삶의 진실 깨우쳐준 '소승의 스승'—이태동
이 책 그 사람	28	《성공하는 사람들의 풍수지리》 펴낸 지창룡씨 《집 이야기》 펴낸 김기석씨
	29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 펴낸 권은숙씨 《사리》 펴낸 이형씨
세계의 출판	30	일본계 영국작가 이시구로의 신작소설·외
	32	어린이 책 / 34 신간 안내 / 44 새로운 책